

【논 문】

만주의 모더니즘시*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 『군함 마리(軍艦茉莉)』 시론—

유 수 정**

┃ 차 례 ┃

1. 들어가며
2. 일본 근대문학, 근대시의 전개
3. 다렌의 『아』와 도쿄의 『면』
4. 안자이 후유에의 시작 방법과 해석
5. 이미지즘과 로맨티시즘의 재해석
6. 파편화된 이미지의 내연—러시아

국문초록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는 일본의 모더니즘시를 선구적으로 주도한 시집 『아(亜)』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다. 단시운동을 추진하고 신산문시운동을 일으킨 시집 『아』가 보여준 첨단 근대성(modernism)과 함께 안자이 후유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렌(大連)이다. 1919년, 아버지의 전근으로 21살의 나이에 ‘만주’로 건너가 1934년 일본으로 귀국하기까지 15년간 그의 생활과 문학활동의 근거지는 관동주 다렌이었다.

공상과 지적유희, 끝없는 이마주(image)로 가득한 안자이의 시세계는 단절의 언어로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의 코레스폰던스(correspondence)를 정밀하게 연결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오브제들을 선명하게 연결하는 비약이야말로 “단절된 연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4-A0017 7)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어와 언어,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정밀한 계산으로 연결된 사다리나 밧줄이 존재”한다는 그의 창작방식이다.

안자이의 모더니즘적인 시창작방식은 처녀시집 『군함 마리』(1929)에서부터 이미 시도되고 있다. 이 시들 중 몇 편을 ‘단절된 시어’를 통해 분석해 보면, 이미지와 로망티시즘으로 가득차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일본 모더니즘시가 그 이미지들을 은밀하게 이어간 ‘사다리’와 ‘밧줄’은 하나의 단어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대륙침략의 교두보이자 러시아/소련과 대립하는 최전선인 만주/관동주 다롄의 시인은 나비에서도 고양이에서도 해바라기에서도 기차에서도 달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강렬했던 경험에서조차도 ‘러시아’를 떠올리고 있었다. 당시의 일본 시단에서 가장 선구적인 모더니즘 시인의 한 사람이었던 안자이 후유에는 정치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문학자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안자이 후유에, 일본 모더니즘시, 『아』, 『군함마리』, 만주 모더니즘

1. 들어가며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는 일본의 모더니즘시를 선구적으로 주도한 시잡지 『아(亞)』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사뿐 아니라, 초등학교의 ‘시’수업에도 안자이의 시 「봄(春)」은 근대시의 형식, 시적 화자, 시점, 시창각적 효과 등을 설명하는 데 자주 쓰이는 소재로 일본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시 중 하나로 꼽힌다. 단시운동을 추진하고 신산문시운동을 일으킨 시잡지 『아』가 보여준 첨단의 근대성(modernism)과 함께 안자이 후유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롄(大連)이다. 1919년, 아버지의 전근으로 21살의 나이에 ‘만주’로 건너가 1934년 일본으로 귀국하기까지 15년간 그의 생활과 문학활동의 근거지는 관동주 다롄이었다.

‘만주’에서의 일본인들의 문학활동, 즉 만주일본어문학에 관한 연구는 전후 일본문학연구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어왔으나, 1990년대 이후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문학비평 연구방법론의 대두와 중국에서의 ‘만주국’시대 관

런 자료에 대한 발굴·공개 및 복각·출판작업 추진, 일국문학적인 ‘국문학’연구의 탈피 등의 조류 속에서 2000년대 이후 여타 일본제국의 ‘외지문학’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영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까지 안자이 후유에의 시에 관한 연구는 일본 모더니즘시의 맥락에서만 접근되어오다가 최근의 연구들은 다렌이라는 토포스에 집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¹⁾ 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시도는 다렌이라는 공간에 집착한 나머지 당시의 시인들이 언어로 그리고자 했던 그림을 축소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적어도 필자의 독서체험으로는 다렌의 시인들, 그 중에서도 유독 다렌을 고집했던 안자이 후유에의 시는 일본과 다렌을 넘어서는 세계가 분명 보이기 때문이다. 이하, 안자이의 처녀시집 『군함 마리』에 실린 시들을 중심으로 그의 모더니즘시의 창작 방식과 시세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일본 근대문학, 근대시의 전개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의 사상이나 문화를 도입하는 문명개화를 추진하였고, 이는 문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문학에서의 근대는 서양의 사상과 문학을 번역 소개하는 계몽기를 지나, 근대화의 진행에 따른 자의식의 각성으로 인간성 해방을 부르짖고 개방적인 자유를 갈구하는 낭만주의 문학의 등장으로 전개되었다. 모리 오가이(森鷗外)는 독일에서의 경험을 소재로 『무희(舞姬)』(1890)를 발표하였고, 기타무라 도코쿠(北村秀谷)는 근대적 자아의 내면을 충실하게 주장한 평론 『내부생명론(內部生命論)』(1893)을 쓴 후 25살의 나이로 자살했다. 이후 자연주의와 반자연주의의 대립이

1) 니시무라 마사히로의 논문(西村將洋, 2004, 「大連の詩人たち—詩誌『亞』と地政學, 『同志社國文學』 61)과 에리스 도시코의 논문(エリス俊子, 2011, 「疊まれる風景と滯る眼差し—『亞』を支える空白の力學について,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2-4), 나가오 다케시(長尾建, 2009, 「安西冬衛「冬, 論—大連といふボス, 『駿河台大學論叢』)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 문단을 지배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중소설과 프롤레타리아문학이 등장한다. 쇼와 초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는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모더니즘문학이 병립하는 시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일어난 다다이즘, 미래파, 표현파 등의 기교는 그대로 일본에 유입되었고, 시에서도 기존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시를 만들어 가려는 실험정신이 발흥했다. 이때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 기타가와 후유히코(北川冬彦), 미요시 다쓰지(三好達治) 등이 신산문시운동(新散文詩運動)을 전개하였다. 중일전쟁 발발로 시작된 전시기에는 일본문단은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탄압으로 인한 전향이 속출하는 한편, 국수적인 동향과 함께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의 일본낭만파(日本浪漫派)가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기성작가들의 국책문학이 양산되었다.

이상은 패전 이전의 일본근대문학사를 일부분만 강조하여 극히 간략하게 개괄한 것이다. 유럽에서 르네상스 이후의 문예사조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모더니즘으로 바뀌어가는 흐름이었던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비유럽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차이들의 이유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크게는 일본의 근대가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급격하게 시작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갈등뿐 아니라 서구와 일본(또는 아시아)의 갈등도 동시에 발생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일본의 근대문학의 진개를 운문에 한정하여 살펴보자면, 1882년에 『신체시초(新体詩抄)』가 출판되면서 일본의 근대시는 시작된다. 『신체시초』는 동경제국대학의 교수였던 도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야타베 료키치(矢田部良吉)의 공저로 서문, 번역시 14편, 창작시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인 짧은 시형이 근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서양시를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용어나 발상은 단카(短歌)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문명개화의 풍조 속에서 단카·하이쿠(俳句)·센류(川柳)·한시 등의 종래의 전통적인 문예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형을 창출하려는 기운이 짙고 있었다. 이

것은 시의 제재를 폭넓게 하고 평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시를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신체시에 예술성과 낭만적 서정을 갖도록 자극한 것이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번역시집 『오모카게(於母影)』(1889)이다. 뒤이어 1890년대에서 1900년대에 걸쳐서 서양사상을 받은 시가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시마자키 도순(島崎藤村)은 전통적인 7·5조의 시 형식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정신을 담은 신체시 『와카나슈(若菜集)』(1897)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 시집은 찬송가의 형태를 빌어 메이지 청춘의 고뇌와 감정과 역동적인 젊음을 일본의 미의식과 서구 근대시의 형태를 융합시켜 7·5조의 애조를 띤 유려한 운율로 노래하고 있다. 이어서 1905년 우에다 빈(上田敏)의 번역시집 『해조음(海潮音)』(1905)의 영향으로 일본 상징시가 발전하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연주의 문학의 영향으로 구어자유시 운동이 생겨났다. 가와지 류코(川路柳虹)나 소마 교후(相馬御風) 등은 전통적인 7·5조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과 평이한 구어로 일상의 생활실감을 표현하려 했다.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는 평론 「먹고살아가야 할 시(食らふべき詩)」(1909)에서 구어를 사용한 실생활에 뿌리내린 시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서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번역, 내지는 형식과 내용의 모방의 형태로 일본의 근대시가 틀을 잡아가던 메이지기를 벗어나, 1910년대 다이쇼기에 들어서면 일본식으로 소화된 근대시를 보여준다. 1912년에 접어들어 시라카바파(白樺派)를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적, 이상주의적 경향을 가진 시인이 두드러진 활약을 벌인다.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묘쥬(明星)』·『스바루(すばる)』 등에서 활약한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가 있다. 그는 한 때 데카당스적인 경향으로 빠져들었지만 시라카바파로부터의 영향이나 나중에 부인이 된 나가누마 치에코(長沼智恵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상주의적 경향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구어자유시 추진에도 큰 힘을 쏟았다. 구어자유시 운동은 1차 대전 후의 데모크라시 사조를 배경으로 해서 시로토리 세이코(白鳥省吾)·모모타 소지(百田宗治) 등의 소위 민중파 시인들에 의해

서 계승되었다. 그들은 자유·평등·우애 등을 모토로 평이한 말로 자신들의 사상을 노래하며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즈음에 호리구치 다이가쿠, 사토 하루오(佐藤春夫), 하기와라 시쿠타로(萩原朔太郎) 등이 등장하면서 일본 근대시는 예술적 완성의 단계에 이른다.

한편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전개와 함께 종래의 서정이나 낭만성을 부정하고 농촌이나 공장 노동자의 생활을 노래하는 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시는 혁명운동의 사상 선전을 위해 만들어져 미숙한 것이 많았는데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의 시는 선열함과 뛰어난 말의 선택으로 풍부한 예술성을 보여주었다. 매너리즘에 빠진 구 시단과 이데올로기 선전으로 추락한 프롤레타리아 시단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의 형성과 방법론을 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 신 운동의 거점이 된 것이 하루야마 유키오(春山行夫)가 창간한 『시와 시론(詩と詩論)』이었다. 『시와 시론』은 1920년대에 일본의 기성 시단에 불만을 품은 시인들이 새로운 전위문예사조에 영향을 받아 만들었던 동인지²⁾의 집합체적인 성격으로 시작됐다. 각각의 경향은 다양했으나, 하루야마의 편집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항하는 모더니즘 운동의 거점을 이루었고, 이 운동을 통해 신산문시·단시·쉬르리얼리즘시·주지시 등 새로운 형태의 시가 생겨났다. 이렇게 일본의 시단이 ‘근대’를 도입하고 소화하여 또 다른 움직임으로 나아가려고 하던 시기에 활동한 사람들이 바로 다렌의 시인들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안자이 후유에가 중심적으로 만들었던 시잡지 『아』가 바로 일본 현대시의 시작을 알리는 시잡지 『시와 시론(詩と詩論)』의 선구였다.

3. 다렌의 『아』와 도쿄의 『면』

일본 중앙문단의 흐름의 영향 하에 제국일본의 ‘변방’으로서 조선, 대만,

2) 동인지(詩誌) 『謝肉祭』, 『亞』, 『薔薇 魔術 學說』, 『面』 등.

‘만주’ 등의 ‘외지’에서도 근대문학이 시작되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제국의 중앙과 ‘변방’의 역학관계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근래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만주’에서의 모더니즘 시운동은 제국의 중앙을 선도하는 움직임이었고, ‘만주낭만’은 제국의 변방이자 최전선에서 변태되어 ‘포스트-제국’을 지향하는 움직임이었다.

만주국은 일본 제국이 상상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일면 일본에게 편리한 방편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국의 지배자들의 발목을 잡고, 불편을 끼치는 근거로도 작용했다. 관동군과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의 만주 경영이 눈에 띄던 초기 만주국 시기에는 제국의 중앙, 일본정부와 변방, 관동군과의 만주라는 기득권을 둘러싼 긴장 관계가 나타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분리의 방향으로 자라 나갔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중·말기 만주국은 전시의 총동원체제에 휩쓸리며 중국전선을 위한 후방 병참기지로 화하여, 제국의 몰락직전에는 연합군 측에 참여한 구소련군과 대결하는 최후의 전쟁터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군사적·정치적 영역에서만 나타난 성격이 아니었다. ‘문학’이라는 문화적 영역에서도 만주국은 일본제국의 변방으로서 뿐만 아니라 ‘독립국’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만주의 일본어문학계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932년 ‘만주국’ 건국에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시기를 ‘만주국’ 초기라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만주국’ 일본어문학계는 비교적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작문』을 중심으로 한 만철 사원들의 창작 활동이 중심으로, 아마추어적 문학 동인의 성격이 강했다. 1936년부터는 “만주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만주문학’ 개념화를 위한 <만주문학론>이라는 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1937년, ‘만주국’의 일본어문단에서는 ‘만주문학이란 무엇인가’, ‘만주문학은 어떠한가만 하는가’라는 ‘만주문학’ 개념화 논의가 현지(만주)의 신문과 잡지의 지면상에서

펼쳐졌다. 이때의 주요 논점은 ‘오족협화’의 슬로건에 맞는 민족문화의 공생인가 일본주도의 동화인가라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논의는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 했지만, ‘만주’의 독자성을 전제로 ‘만주문학’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식은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국’ 이전의 ‘만주’에서 일본인들의 문학활동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오카다 히데키(岡田英樹)는 『문학에서 보는 ‘만주국’의 위상(文學にみる「滿洲國」の位相)』(研文出版, 2000)에서 “‘만주국’에서 일계(日系) 작가들의 활동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있었다. 초기에는 그 대부분이 다롄(大連)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문학살롱 집단에 불과했으나, 그 중에서 기타가와 후유히코(北川冬彦)와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가 발행한 시잡지 『아(亞)』는 일본 근대시를 이야기하는 데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잡지는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발행되었다”고 기술한다. 만주국 이전, 즉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랴오둥(遼東)반도의 끝 관동주를 조차지로 경영했던 때부터 일본인들은 ‘만주’에 거주했고, 이때부터 1932년 ‘만주국’이 탄생하기까지 다롄을 비롯한 관동주는 일본의 식민지와 비슷한 형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서의 일본어문학은 식민종주국인 ‘내지’ 일본문학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정치적 종주지는 문학적 종주지와 일치하였다.

일본 모더니즘시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시잡지 『아』는 출발 단계부터 당시 제국일본의 ‘내지’와 ‘외지’의 문단을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보여준다. 이를 잘 드러내는 예가 바로 시 동인지 『아』와 『면』의 관계일 것이다.

『아』의 발단은 1923년 여름에 기타가와 후유히코(北川冬彦), 기도코로 에이치(城所英一), 도미타 미쓰루(富田充)가 안자이 후유에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이 세 명은 같은 뤼순(旅順)중학교 동급생이었고, 당시에는 기타가와와는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기도코로와 도미타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다니고 있었다. 이 세 명이 다롄의 집에 귀성하여 안자이를 방문했을 때 잡지창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의 모습을 기타가와와는 네 명이 원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회상하지만,³⁾ 안자이는 ‘대결’이라고 부르

고 있다. 도쿄에서 잡지를 창간하자고 주장하는 기도코로의 제안을 거부하고 다렌에서 잡지발행이 결정된 것이었다⁴⁾. 안자이의 기억대로 『아』 제3호(1925년 1월) 이후로 기타가와, 기도코로, 도미타 3인은 『아』의 동인에서 빠지면서 새로이 다키구치 다카시가 참가하고, 가토 이쿠야(加藤郁哉)와 미즈하라 모토코(水原元子, 기타카와의 여동생)도 기고하게 된다. 그리고 기타가와를 비롯한 3인은 도쿄에서 후쿠토미 세이지(福富善兒)와 함께 발행하던 시잡지 『미답지(未踏地)』를 『면(面)』(1925년 11월)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어간다. 그러면서도 기타가와는 『아』에 기고를 계속하여 다렌과 도쿄를 걸친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아』와 『면』은 점차 문단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가 “최근 안자이씨와 『아』의 동인들이 잡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2,3행의 인상시는 하나의 새로운 시형으로 주목할 만하다”⁵⁾는 언급은 결정적이었다. 그에 바로 이어서 『아』와 『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줄을 잇고, 급기야 단시운동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나기까지 했다.⁶⁾

이상의 개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모더니즘시의 선두에 있던 『아』와 『면』의 동인들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시운동’과 ‘산문시운동’으로 대표되는 선진성과 전위성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그들의 시는 이미지즘, 인상시, 로맨티시즘이라는 수식으로 장식되어 왔다. 그리고 불과 최근에 들어 만주 문학 연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들이 활동했던 ‘다렌’이라는 공간이 주목되고 있고, 그에 착목하여 시잡지 『아』와 다렌이라는 토포스의 문제를 다룬 논문들이 몇 편 발표된 정도라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안자이 시의 새로운 ‘형식’에 문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었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北川冬彦, 1961, 『『亞』と『面』』, 『本の手帳』 3号 참조.

4) 安西冬衛・池田克己・佐藤賢二・花村獎・深尾須磨子, 『雜談』 『時間』.

5) 萩原朔太郎, 1925, 『日本詩人九月月号旦』, 『日本詩人』 5卷.

6) 다렌에서 출발한 시인들이 일본의 중앙시단과 ‘외지’ 시단을 왕복, 또는 평행하면서 행했던 시작활동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니시무라 마사히로의 논고 2절~5절 참조. 西村將洋, 2004, 『大連の詩人たち—詩誌『亞』と地政學』 『同志社國文學』 61.

들이서 살고 있었다. 내 평생 가장 낙천적인 나날들을 즐기며 시만 쓰면 되는 좋은 팔자였다”⁷⁾고 남기고 있다. 1919년 21살의 나이로 ‘만주’에 건너가 23살에 만철에 입사하지만, 후우슬관절질환(後右膝關節疾患)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다. 그 3년 후에 다키구치 다케시(瀧口武士)와 기타가와 후유키코(北川冬彦) 등을 만나 잡지 『아(亞)』를 창간하고 도쿄의 『면(面)』에도 기고하면서 단시운동(短詩運動)을 선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⁸⁾

안자이의 시는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기타가와가 “인생과 일정한 거리를 설정하고, 그곳에서 지적유희를 즐기던 시인으로 안자이 후유에가 있다”⁹⁾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시의 특색은 공상과 지적유희, 그리고 끝없는 이마주(image)로 가득하다. 안자이 스스로도 “밤낮으로 솟아오르는 방자한 환상과 두서없는 이마주에 단지 방법을 부여하면 됐다”¹⁰⁾고 말한다. 오른쪽 다리 절단 이후에는 만철을 퇴사하고,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오직 시를 쓰며 살았다. 그는 자전 「생애의 부분」¹¹⁾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사어(死語) 발굴인. 앉아 있는 여행자, 유추의 악마를 조종하는 사내”라고 쓰고 있다. 그가 앉은 자리 옆에는 대백과사전과 사전류, 지리대계, 지도, 신문 등이 펼쳐져 있었고 벽들을 쌓듯 단어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단절하던 시인이었다. 기타가와는 “절름발이 불구자의 걸음에는 다른 이들을 추월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종의 박차가 장착되어 있다고 불구자인 바이런이 말했다. 안자이 후유에는 한쪽 다리를 상실한 슬픔을 바이런처럼 강인한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데에 성공했다”¹²⁾고 말한다. 안자이는 코레스폰던스(correspondence : 부합, 조응, 유사, 암합, 공명 등)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기상천외하고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오브제들을 선명하게 연결하곤 했지만, 그 결합의 끈이 보이지 않을 때 독자들은 안자이의 시를 난해하다고 말한다.

7) 안西冬衛, 1986, 「『軍艦茉莉』의界限」, 『安西冬衛全集』別卷, p.266.

8) 「安西冬衛年譜」(『日本詩人全集』34, 新潮社, 1968) 참조.

9) 北川冬彦, 1956, 『詩の話』, 角川文庫.

10) 안西冬衛, 1986, 「『軍艦茉莉』의界限」, 『安西冬衛全集』別卷, p.266.

11) 안西冬衛, 1983, 「生涯の部分」, 『安西冬衛全集』3, p.293.

12) 北川冬彦, 1958, 『現代詩Ⅰ』.

물(物)

구름 낀 하늘은 물고기가 있다. “알에 털 있고, 닭은 다리가 세 개”¹³⁾①

이 시는 난해하지만 후유카와의 해설을 빌리면 “<구름 낀 하늘은 물고기가 있다>는 것은 구름 낀 하늘에서 물고기를 이미지하는 것이라. <알에 털 있고, 닭은 다리가 세 개>는 중국의 고전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철학이라고 한다. 계란은 부화해서 털이 있는 생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끈한 알에도 털이 있다. 닭은 두 다리로 걷는다. 그러나 닭을 걷게 하는 지상명령 같은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 더해져 닭의 다리는 세 개가 된다는 사상이다”라고 한다. 이어서 후유카와는 “작자(=안자이 : 인용자)는 <구름 낀 하늘이라는 하나의 틀을 설정함으로써 物(오브제)을 제출했다. 이 시는 앵스트랙트(추상)의 세계다>라고 말한다”¹⁴⁾고 덧붙이는데, 이는 구름에서 물고기로, 물고기에서 알로, 알에서 닭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만물이 하나의 것(一者, Hen)에서 단계적으로 산출되는 신플라톤주의적 방식을 안자이 스스로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자이는 신비적이고 범신론적인 신플라톤주의와 강하게 묶여 있는 “Occultism에 날 때부터 이상할 정도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나”¹⁵⁾라고 스스로 말한다. “단절된 언어와 언어,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정밀한 계산으로 연결된 사다리나 밧줄이 절대 존재한다. 단지 그것들이 투명할 뿐이다. 걸으려는 짐작하기도 힘든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타난다. 있을 수 없는 사물과 사물의 결합. 오브제와 오브제의 뜻밖의 만남. 이를 처리하는 단절수법. 이런 것들의 재미”¹⁶⁾가 그의 시에 보이는 비약의 의도이자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시들을 전부 ‘해독’해 내는 일은 안자이와 같은 수준의 견식과 경험, 정서를 갖거나 그 이상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특히나 90년이라

13) 安西冬衛, 1977, 「物」 『安西冬衛全集』 1, p.39.

14) 北川冬彦, 1956, 『詩の話』, 角川文庫.

15) 安西冬衛, 1977, 「汗の亡靈」 『安西冬衛全集』 1, p.191.

16) 安西冬衛, 1978, 「詩集『座せる闘牛の』のマニフェスト」 『安西冬衛全集』 2.

는 1세기에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 그의 시어들을 추적해 나가는 작업은 당시를 재현할 수 있는 힌트가 없다면 극히 지난하고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지만 이 힌트도 결국 그의 시들 안에 있다.

시집 『군함 마리』의 첫 번째 시로 동명의 산문시 「군함 마리」가 등장한다. 선내 반란으로 함장실에 갇혀 기관장에게 겁탈당하는 여동생을 생각하는 무력한 함장의 이야기이다. 두 번째 시 「엄인(閩人) 친(獮)씨」에는 죄의식을 품고 중국 간쑤성(甘肅省) 끝 토굴에 누워 자신의 업이 영겁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하는 고자(=엄인)인 ‘나(私)’가 등장한다. 이어서 세 번째 시 「신장의 태양(新疆の太陽)」에서는 신장(新疆)지역에 닥치는 모래바람과 ‘죄악적(罪惡的)’ 기운의 출현을 묘사한다.

다음은 네 번째 시이다.

땅을 기는 ‘과란 점’. 낙일(落日)이 쓰러졌다. 참담한 종언이 전쟁 위에 내려왔다.

이미 한 번은 덮쳤던 시반(屍斑)이 길고 긴 밤 그늘과 고통 뒤에 잘렸다.
피곤한 군의(軍醫)의 손으로 창연한 나의 한 다리가 떨어져나갔다.

새벽이 왔다.^{17)②}

이 시는 안자이가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1921년 10월에 후우슬관절질환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고, 이듬해 1월에 재수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던, 그때까지의 안자이 생애에서 가장 선명할 수밖에 없는 체험이다. 특히 재수술 때는 과다출혈로 위독해졌다가 아버지와 간호부장의 수혈로 겨우 목숨을 건졌던 일화를 훗날 안자이 스스로도 거듭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에는 그의 경험을 재현하는 것만으로는 해독이 어려운 시어들이 몇 군데 보인다. 그 중에도 1행은 그의 경험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

17) 安西冬衛, 1977, 「勳章」 『安西冬衛全集』 1, p.23.

다. 원문을 보면 ‘파란 점’은 ‘靑い瘧’로 되어 있고 위에는 ‘モンゴル・フルツケ’라고 후리가나가 달려있어 이는 몽고반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이 스스로를 ‘몽고반점’이라고 칭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먼저 생긴다. 이어서 나오는 시어 ‘낙일’은 더욱 알 수 없고, 뜬금없는 ‘전쟁’까지 등장한다. 그렇다면 안자이가 생사를 오고가는 수술을 하던 1922년이라는 시간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 보자. 1922년에는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마지막 시베리아 출병이 있었던 해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붕괴하고 볼셰비키 정권은 단독으로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어 연합국과 동맹국 사이의 균형관계는 다른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에 미일영불 4개 연합국은 러시아 혁명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간섭전쟁을 개시하면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의 ‘체코군 포로 구출’을 명분으로 1918년 7월 총병력 2만 8천명(일본 1만2천)을 출병을 하기로 하는데, 이때 일본은 협정을 무시하고 7만 3천 병력을 보내 동부 시베리아 요지를 점령했다. 4국 연합군은 반혁명 세력을 지원했으나, 주민들의 빨치산 투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9년 가을 반혁명 코르차크 정권이 적군(赤軍)에 패배함으로써 간섭전쟁의 실패가 명확해지자 20년 6월까지 미영불 3국은 철군했다. 그러나 일본만은 계속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니콜라예프스크 사건(니항사건)이 일어나자 그 보상에 대한 보상으로 북사할린을 점령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권과 인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데다 열강의 의혹과 국내의 반대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22년 10월 시베리아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비 10억 엔, 전사자 3천, 동사자 무수라는 막대한 희생을 낸 출병이었지만 얻은 것 하나 없이 내외의 엄한 비난에 직면했으며, 침략전에 나선 이래 일본 최초의 패배를 기록한 것이 되었다.¹⁸⁾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를 다시 보면 많은 부분이 해독 가능해진다. ‘땅을 기는 ‘파란 점’은 시베리아에 출병한 몽골리안, 즉 일본군

18) 「한국근현대사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606&cid=814&categoryId=1924>

이고, 쓰러지는 ‘낙일’은 패색 짙은 일본, ‘참담한 종언’은 막대한 희생만이 남은 병력의 철수, ‘전쟁’은 시베리아 출병을 포함한 간섭전쟁과 이를 빌미로 대륙에서의 세력 확장을 꾀했던 일본의 침략전이 된다. 2행부터는 안자 이 자신의 수술 및 신체상실의 체험과 역사적 사건이 겹쳐진다. ‘이미 한 번은 덮쳤던 시반(屍斑)’은 재수술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나카대대(田中大隊) 전멸(1919.2), 니항사건(尼港事件, 1920.3) 등을 거치며 피해를 더하고 패색이 짙어가는 전세를 무시하고 계속 끌어온 전쟁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길고 긴 밤 그늘과 고통’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 ‘긴 밤’과 ‘고통’은 ‘피곤한 군의(軍醫)의 손으로’ 잘려나간다. ‘나의 한 다리’와 함께. 마침내 ‘새벽’이 오는 것이다. 여기서 ‘새벽’은 원문에서는 ‘天明’로 되어 있고, 발음 상 天命 즉, 하늘의 뜻과 같다. 이렇게 역사적 사건과 시를 연결하면 비로소 파편적인 시어들이 연관을 지으며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의 제목은 ‘훈장(勳章)’이다. 바로 자신이 다리를 잃은 것이 무고한 희생만 낳았던 의미 없는 전쟁을 끝낸 훈장¹⁹⁾과도 같고, 이것이 바로 밝은 새날이자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5. 이미지즘과 로맨티시즘의 재해석

처음 인용했던 시 「봄」 바로 앞에는 「전쟁(戰役)」이라는 연작시가 실려 있다.

전쟁(戰役)

침략

백년의 전쟁은 판도 중앙을 크게 바꿨다.

19) 제1차 세계대전 말인 1918년 독일제국은 전쟁부상병에게 수여하는 전상장(戰傷章, Verwundetenabzeichen)을 제정하였다.

초승달은 드디어 불타버렸다
그러나 강은
조용히 마을을 흐르고 있다.

전쟁(役)

우마(牛馬)는 끊임없이 달이 뜨는 마을을 흐르고 있다.^{20)③}

이 연작시는 제목에서 바로 ‘전쟁’과 관련된 내용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여느 안자이의 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슨 전쟁을 말하며 어떠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는 쉽게 알기 힘들다. 안자이의 시작 방법이 연상과 유추로 연결된 단절의 언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위의 연작시도 ‘겉으로는 짐작하기도 힘든 비정상적’인 단어들의 나열 속에서 ‘단절된 언어와 언어,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정밀한 계산으로 연결된 사다리나 밧줄’을 찾아내야 한다. 여기서는 ‘백년의 전쟁’, ‘초승달’ 정도가 힌트가 된다. 같은 시집에 실린 시 「토르크(土耳其)」를 참고로 하면 보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토르크(土耳其)

초승달은 흐려졌다. 돛대에 기어오른 남자는 우표 장식으로 끝났다. 만(灣)은 옅은 저녁 안개 아래 상감(象嵌)되었다.^{21)④}

이 시에 등장하는 ‘돛대에 기어오른 남자’의 정체는 모른다. 그렇지만 첫 문장에 등장하는 ‘초승달’에서 ‘토르크’ 즉 터키/투르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슬람교의 상징이자 오스만 제국 이전부터 투르크족의 깃발로 쓰였던 월성기를 떠올리면 연상은 쉽다.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 보면, 투르크를 둘러싸고 100년 전에 있었던 전쟁, 즉 러시아와 오스만투르크·영국·프랑스·프로이센·사르데냐 연합군

20) 安西冬衛, 1977, 「戰役」 『安西冬衛全集』 1, p.31.

21) 安西冬衛, 1977, 「土耳其」 『安西冬衛全集』 1, p.105.

이 크림반도·흑해를 둘러싸고 벌인 크림전쟁(1853~1856)이 된다. 바로 대외 팽창 정책으로 남진하는 러시아와 투르크와의 오랜 전쟁이다. 이후 러시아와 투르크 전쟁은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전쟁까지 포함해서 총 1~6차 러시아-투르크 전쟁이라고 불린다. 약 100년 동안 지속된 이 대립은 1921년 크림반도가 소련에 편입되어 크림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탄생하면서 투르크 세력은 완전히 밀려나고 스탈린 정권하 크림 타타르족이 추방되면서 남은 이슬람 세력까지 크림반도에서 밀려나게 된다. 소련/러시아의 ‘침략’으로 반도(半島)의 판도(版圖)는 바뀌고, 투르크의 ‘초승달’은 불타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의 강은 그 땅을 가로질러 묵묵히 흐르고 있다는 전개는 무심한 시간이지만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아직은 ‘달이 뜨는 마을’, 타타르 무슬림들이 남아 있는 크림반도에는 여전히 소련의 병력이 지나가고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이 시에 바로 이어서 여린 나비가 역동적으로 타타르해협을 건너는 「봄」이 이어진다. “나비가 한 마리 타타르해협을 건너갔다.” 새롭게 시베리아로 건너가는 일본의 ‘봄’이다.

푸란티엔(普蘭店)이라는 역에서

급행열차의 Deck에서 살포시 고양이 내렸다(날다람쥐처럼.) 사건은 단지 그것뿐이었다.²²⁾⑤

고양이가 열차에서 내린 사건에서 그려지는 풍경은 어느 고양이를 사랑하는 부인이나 아이가 고양이를 데리고 열차여행을 하다가 목적지에서 내리는 이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제목 「푸란티엔(普蘭店)이라는 역에서」에 모든 열쇠가 있다. 푸란티엔은 다렌에 위치한 시(市)로, 1905년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휘순(旅順)·다렌 조차지를 이양 받은

22) 安西冬衛, 1977, 「普蘭店といふ驛で」 『安西冬衛全集』 1, p.65.

포츠머스 조약과 관련이 있다. 이때 푸란티엔 이남의 남만주철도의 조차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푸란티엔은 일본의 첫 대륙진출의 최북단 전선이 되며, ‘단지 그것뿐’인 사건은 바로 일본인의 대륙진출의 ‘첫발’인 셈이다.

6. 파편화된 이미지의 내연—러시아

지금까지 고찰한 시들의 시어는 언뜻 파편화되고 단절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기상천외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 조응(correspondence)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예로 든 시들은 「훈장」, 「전쟁」, 「토르크」, 「푸란티엔이라는 역에서」와 같이 이미 제목에서부터 ‘정치적’인 성격이 드러나, 단순히 ‘이미지즘’과 ‘로맨티시즘’이라는 수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의심스러운’ 텍스트들이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일상적인 ‘해바라기’를 소재로 한 시를 보자.

해바라기는 이미 검은 탄약
오늘밤 수프에는 풀씨가 떠 있다.
1000 islands.²³⁾⑥

해바라기 씨를 띄운 수프를 마주한 저녁식탁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그 수프를 보고 1000개의 섬을 떠올린다. 천(千)의 섬(島). 바로 1875년 러일 치시마·가라후토(千島樺太) 교환조약 이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치시마(千島)열도, 즉 쿠릴열도의 문자유희다. 쿠릴열도를 연상시키는 씨앗은 ‘검은 탄약’같은 해바라기씨이고, 해바라기는 주지하듯이 러시아의 국화(國花)다. 쿠릴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소련의 갈등을 식탁에 앉아서까지 떠올리는 이미지의 연속이다.

23) 安西冬衛, 1977, 「向日葵はもう黒い彈藥」 『安西冬衛全集』 1, p.77.

이상에 인용한 시들은 1920년대 초반, 만주의 관동주 다롄에 거주 중이던 안자이 후유예의 시집 『군함 마리』에 실린 텍스트들이었다. 이미지와 로망티시즘으로 가득차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일본 모더니즘시가 그 이미지들을 은밀하게 이어간 ‘사다리’와 ‘밧줄’은 하나의 단어로 수렴된다. 일본의 대륙침략의 교두보이자 러시아/소련과 대립하는 최전선인 만주/관동주 다롄의 시인은 나비에서도 고양이에서도 해바라기에서도 기차에서도 달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강렬했던 경험에서조차도 ‘러시아’를 떠올리고 있었다.

과연 안자이가 러시아/소련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당시의 일본 시단에서 가장 선구적인 모더니즘 시인의 한 사람이었던 그가,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학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만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시 원문】

① 物

曇天は魚を有つ。「卵に毛あり。鶏は三足。」

② 勲章

地を這ふ「青い痣(モンゴル・フレツケ)」。落日が倒れた。慘憺たる終焉が戦の上
上に垂れ下つた。

既に一度は来て犯した屍斑が、長い長い夜陰と苦痛の後に断たれた。
困憊した軍医の手に、愴然として私の一脚が墮ちた。

天明が来た。

③ 戦役

侵略

百年の戦役は版図の央を殷くした。

三日月は臆てうち煙つた
河はしかし
だまつて府を流れてみた。

役

牛馬は絡繹と月の出の府を流れてみた。

④ 土耳其

新月は燻んだ。檣によち登つた男は郵便切手の装飾に秘蔵はれた。湾はうつすら暮靄の底に象眼されている。

⑤ 普蘭店といふ駅で

急行列車の Deck から、さつと猫がとび下りた(むささびのように。)事件といふのは一たつた、それだけである。

⑥ 向日葵はもう黒い弾薬

今夜のスープには草の実が浮いてゐた。

1000 islands.

참고문헌

- 安西冬衛, 1977, 『安西冬衛全集』 1, 宝文館出版
_____, 1977, 『安西冬衛全集』 3, 宝文館出版
_____, 1986, 「『軍艦茉莉』の界限」 『安西冬衛全集』 別卷
エリス俊子, 2011.3, 「曇まれる風景と滞る眼差し—『亜』を支える空白の力学について」 『立命館
言語文化研究』 22-3
北川冬彦, 1956, 『詩の話』, 角川文庫
_____, 1961.5, 「『亜』と『面』」 『本の手帳』 3
萩原朔太郎, 1925.11, 「日本詩人九月号月旦」 『日本詩人』 5
長尾建「安西冬衛, 2009.7, 「冬」論—大連といふトポス」 『駿河台大学論叢』 38
西村将洋, 2004.12, 「大連の詩人たち—詩誌『亜』と地政学」 『同志社国文学』 61

■ 日文概要 ■

「満洲」におけるモダニズム詩
—安西冬衛『軍艦茉莉』試論—

柳水晶

安西冬衛は、日本モダニズム詩を先駆けた詩誌『亜』の中心人物として知られている。短詩運動を牽引し、新散文詩運動を起こした『亜』が見せる最先端の近代性(modernism)と共に、安西冬衛を理解するときに重要なキーワードは「大連」である。1919年、父の転勤で21歳に「満洲」に渡り、1924年、日本の帰国するまで、15年間枯れの生活と文学活動の根拠地は関東州の大連であった。

空想と知的遊技、限りのないイメージ(image)に満ちた安西の詩世界は、断絶の言語を使って、物(objet)と物との間のコレスポンドンス(correspondence)を精密に結び付ける手法を用いる。奇想天外で、まったく結びつかない物を鮮やかに結びつける飛躍こそが「断絶した言語と言語、文字と文字の間には精密な計算によつて掛けられた梯子なり綱なりが烈しく存在」するという彼の創作方法であろう。

安西のモダニズムな詩創作方法は、彼の処女詩集『軍艦茉莉』(1929)からすでに試みられている。そのなかのいくつかの詩を「断絶して詩語」を通して分析してみると、イメージとロマンチズムに溢れ、前衛的で実験的だった日本モダニズム詩がそのイメージを密かに繋げていた「梯子」と「綱」は一つの単語に収斂する。日本の大陸進出の橋頭堡で、ロシア/ソ連と対立する最前線、「満洲」/関東州の詩人には猫も蝶々もヒマワリも、汽車も、月も、しいては自分の生涯で一番強烈だった死の経験までもが「ロシア」を思い起こす。当時の日本詩壇で一番先駆的なモダニストだった一人が、政治的に一番敏感な文学者であったのである。

核心語：安西冬衛, 日本モダニズム詩, 『亜』, 『軍艦茉莉』, 満洲モダニズム